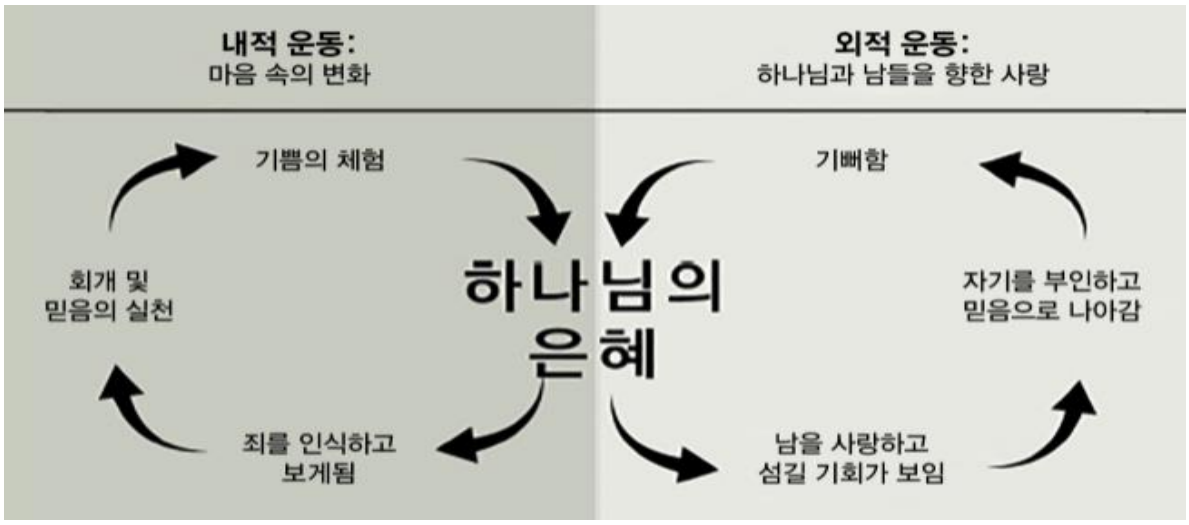
읽을 내용 (Article): 복음은 우리를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The Gospel propels us outward)

우리가 복음의 깊이와 풍성함을 진정으로 알게되면, 예수님과 그 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 장 13 절에 의하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우리의 자유도 '육체의 기회'(an opportunity for the flesh)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그렇게 좋은 복음의 특권을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개인적인 것(a private reality)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을 보면 이같은 현상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변화,' '성장,' 또는 '부흥' 같은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혜택들이 주로 개인적(personal)이고 내적(internal)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의 변화, 나의 성장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은 개인적이고, 내적이긴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on us), 우리 안에서(in us) 역사할 때,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through us) 우리 밖으로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내적인 새로운 변화는 외부로 향하는 원동력(an external propulsion) 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게 만듭니다. 다음 도표가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아래의 도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를 향한 내부적, 외부적 움직임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변화의 기쁨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사랑과 섬김의 동기를 갖게 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쁨을 체험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단지 당신의 내면의 죄악들, 갈등 그리고 마음 속의 우상들에 대한 답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이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 삶(missional life)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만일 복음이 내적으로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당신을 밖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마태복음 9:35)이기 때문이고, 그 나라는 나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10)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심(내부적)과 천국에서와 같이 이땅 모든 곳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외부적),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외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갈 5:14). 그런데 제 교회에 있는 A 성도와 저는 별로 공통 관심사가 없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모든 일(음악, 영화, 음식, 자동차, 삶의 스타일 등)에 저와 취향이 다릅니다. 저는 새로 알게된 음악가나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반면, 그는 옛날 군시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달 동안 제 이웃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친구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감은 저에게 아무런 동기부여의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었지만, 내 마음을 바꿔서 실제로 내가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를 무시하고 아무 것도 안할 것인가? 저는 그를 무시하는 것이 죄인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하는 것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는 기계적인 순종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명령들이 우리에게 아주 고된 일처럼 느껴지기를 의도하신 것일까요?

이같은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주의(그럴 기분이 아니지만 순종하는 것)나 무법주의(전혀 순종하지 않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둘 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명을 위한 연료입니다. 그 연료가 줄어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멈추게 됩니다.

저의 이웃에 대한 딜레마의 해답은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을 변화시키셨을 때, 저의 근본 문제는 이기심과 사랑 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웃에 대한 제 사랑은 조건적이었습니다. 그가 더 젊었거나, 더 똑똑했거나, 저와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았더라면 제가 그를 좀 더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복음의 약속들(특히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 로마서 5:8)을 통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 분과 아무런 공유하는 바가 없었을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이웃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제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이웃을 향한 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든 감정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적인 새롭게 함은 밖으로 제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게 했습니다. 사명은 더이상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명이 어떤 의무(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무엇)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냥 무조건 하라'(Just do it)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외부(즉, 남들)를 향한 자연스러운 복음의 움직임을 단절시키는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복음은 또한 당신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관계들과 기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어디로 향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해 줍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사명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결국 우리를 통해 외부적으로도 변화를 경험하게 해 줍니다.